

송하진 지사, 우박 피해 농장 방문

영농 지장 없도록 신속한 재해업무·피해농업인 애로사항 처리 관련 부서에 지시

송하진 도지사는 우박으로 피해를 입은 농장을 방문, 농업인을 위로하고 영농에 지장 없도록 신속하게 재해업무를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2일 전북도에 따르면 5월 31일 내린 우박으로, 전북지역에는 현재까지 62ha의 농작물 피해가 접수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순창이 59ha, 정읍 1ha, 고창 2ha로 집계됐다.

특히, 순창은 지역에 따라 우박의 직경이 4cm가 넘어 수확을 앞둔 매실, 블루베리, 복분자 등의 피해가 많아 농업인의 시름이 깊다.

송 지사는 수확을 앞둔 매실 농장을 방문해 피해현장을 둘러보고 정확한 정밀조사와 국고지원요청 등 농업인들의 피해가 빠른 시일 내에 복구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말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또한, 우박으로 낙과, 타박피해로 수확을 포기할 상황에 놓인 피해농업인의 애로사항도 꼼꼼히 챙기도록 지시했다.

농업인에게 농작물은 자식과 같은 존재이고 이번 우박으로 받은 상실감이 클 것이라며 관련기관과 유관기관, 민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최선을 다해 복구하자고 당부했다.

도 관계자는 “지속된 가뭄 끝에 비가 아닌 우박이 내려 농업인의 근심과 피해가 가중되었다”면서, “매년 위



삼락 꽃 소비촉진 홍보행사

최근 도청로비에서 청탁금지법 이후 화훼소비 진척과 도민의 꽃 생활화 분위기 확산을 위한 '삼락 꽃 소비촉진행사'에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도민들이 형형색색의 다양한 꽃장식과 판매대를 둘러보고 있다.

기 때마다 지혜롭게 극복했기 때문에 이번 우박피해도 현명하게 극복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5월에만 2번의 우박 피해가 있었으며, 5월 11일 발생한 우박피해는 장수, 순창, 남원에서 67농

가, 107.7ha의 피해가 발생, 국고지원을 위해 농식품부에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했다고 밝혔다./김진성 기자

새만금 지역, 건축 규제 완화됐다

'새만금 도시계획기준' 시행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지역의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새만금 도시계획기준'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계획법에서 위임된 용도지역별 가능 건축물 및 용적률 등을 규정 고시했다.

그동안 새만금 도시계획기준은 인근 지자체(군산·김제·부안)보다 엄격하게 규정되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새만금개발청에서는 규제 완화를 위한 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확정·고시했다.

새만금 도시계획기준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14개 용도지역 80여 종의 건

축물을 새만금 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물 입지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준공업지역은 문화집회시설·숙박시설·판매시설·관광휴게시설·운동시설이다.

유통상업지역은 근린생활시설·문화집회시설·종교시설·교육연구시설·숙박시설이다.

준주거지역은 숙박시설·자동차관련 시설, 계획관리지역은 문화집회시설 등이다.

둘째, 용적률 및 건폐율을 최대 15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해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새만금개발청 도시계획위원회 보결위원 임기를 전임지의 남은 임기로 규정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 서해안권 국가지질공원 인증' 현장실사 진행

전북 서해안권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현장실사가 진행됐다.

지난 2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 서해안권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현장실사가 오는 6일부터 9일까지 고창과 부안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실사에는 환경부를 비롯해 지질, 지리, 생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채석강, 적벽강, 고창갯벌, 운곡습지 등의 지질학적 가치를 비롯하여, 문화, 생태 등 국가지질공원으로서의 가치와 자질을 집중 평가할 예정이다.

또한 지질 교육프로그램 운영, 협력사업 추진 상황 및 탐방객 안내소, 안내판 등 국가지질공원 운영 기반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국가지질공원으

로서의 운영 여건과 발전 가능성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다.

전북도와 고창, 부안군은 지난 3월부터 진행된 사전점검과 서면심사 결과를 토대로 현장실사 준비에 철저히 대비해 왔다.

특히 교육 프로그램 운영 상황과 탐방 정보 제공을 위한 안내체계(리플렛, 안내소, 해설사 배치 등) 점검, 협력기관 발굴 및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지속적으로 수행했다.

이번 현장실사를 시작으로 6월 이후에는 환경부 지질공원위원회 2차 현장실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7월경에 인증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김진성 기자

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추진

전북도는 오는 7일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을 맞아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도내 전역에서 일제히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는 14개 시군 공무원 230여명이 참여,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과 모바일 영치시스템 등을 동원하여 자동차세 및 차량 과태료 등 상습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일제단속에 앞서 각 시군에서는 사전남부 홍보활동을 실시, 사전 공지에도 불구하고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주차장 아파트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영치대상은 지역 내 차량의 경우 자동차세 2회 이상, 차량과태료는 체납 60일경과 30만원이상 체납 차량, 관외 차량의 경우 4회 이상 체납차량은 체납금액과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김진성 기자

장애·비장애 청소년들 새만금서 우정 나눠

'새만금 국제 캠퍼리'·'국제 아구노리', 새만금·줄포만생태공원에서 열려

세계 10여개 나라 장애·비장애 청소년들이 새만금에 한데 모여 꿈과 희망, 우정을 나누는 축제가 3일 열렸다.

전북도는 3일부터 오는 6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새만금과 부안 줄포만생태공원 일원에서 국내외 초·중고 스카우트 대원 및 지도자 등 총 6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3회 새만금 국제 캠퍼리 및 제33회 국제 아구노리(장애청소년 아영대회)'가 개막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행사는 장애청소년 국제 아영대회도 함께 열려 장애·비장애 청소년들이 편견을 버리고

우정을 나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의 신대륙 새만금! 너의 꿈을 그려봐!'를 주제로 한 아영활동을 비롯하여 심폐소생술, 수공활동, 자전거 하이킹, 과학 체험 및 탐구활동 등 과정활동과 짬뽕공원 및 내소사 트레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행사에 참석한 청소년들은 새만금의 뛰어난 자연환경과 잘 갖춰진 프로그램을 직접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세계에 널리 알리고 풍등 및 종이비행기 날리기를 통해 2023 세계캠버리

새만금 유치 영원을 기원했다.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은 해외 스카우트 관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캠퍼리에 참석한 해외 스카우트 지도자 마키(인도)는 "모든 청소년들이 심신을 단련하고 하나로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산과 갯벌 등을 경험할 수 있고 주변 자연환경 또한 굉장히 뛰어나다"며, "2023세계캠버리가 새만금에 유치돼 다시 오고 싶다"고 전했다.

2023년 세계캠버리 개최지 결정은 8월 아제르바이잔에서 163개 회원국 투표로 결정된다./김진성 기자

도, 상반기 현장행정 우수사례 10건 선정

최우수 사례 '군산조선소 위기대응을 위한 행정지원반 운영'

전북도는 5월 31일, 현장행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2017년 상반기 현장행정 우수사례 10건을 선정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우수사례는 도청 전반에 걸쳐 2017년 상반기 동안 실·과에서 추진한 현장행정 중 실·국 자율추천(1차 심사)과 현장행정 심사위원회(2차 심사)를 통해 선정하였으며, 다수 민원 발생, 갈등사안 해결, 제도개선, 예산절감 도민 파급력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했다.

선정된 최우수 사례는 '군산조선소 위기대응을 위한 행정지원반 운영'으로 매주 수요일 총 18회 현장행정을 진행하여 자급지원, 사업다각화, 일자

리 지원, 제도개선 등의 성과를 올려, 조선기업의 각종 애로사항을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수사례로는 민생현장(전주 남부시장)에서 민생경제 해결방안을 위해 마련된 확대 간부회의, 혁신도시에 발생하는 악취민원 해결을 위해 도·시·군 및 관계부서 협업사례, 생활주변의 안전위험 요소와 재난 징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안전신고 전담처리반 설치 등이 선정됐다.

선정된 우수사례는 도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며, 해당 팀장과 담당자에게 직무성과평가시 가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가 지급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